

『涅槃經宗要』의 註釋的 연구(Ⅲ)

李 平 來*

일러두기

1. 『大正新脩大藏經』第38卷, No. 1769, 『涅槃經宗要』를 번역의 底本으로 한다.
2. []: 底本の 것을 東文選에 따라서 수정한 것. 예; 遍[通] 通을 遍으로 수정한다는 말.
3. []: 底本에 없는 것을 글의 흐름에 따라 보충한 것. 예: [大]를 보충한다는 말.
4. 〈 〉: 글의 흐름에 따라서 삭제한 것. 예; 〈無〉 無를 삭제한다는 말.
5. (): 글의 흐름에 따라서 수정한 것. 예; 無有(有無) 有無를 無有로 수정한다는 말.
6. ◇: 인용한 원전에 따라서 수정한 것. 예; 滅◇識 識을 滅로 수정한다는 말.
7. ≤ ≥ 인용한 원전에 따라서 보충한 것. 예; ≤亦≥ 亦을 보충한다는 말.
8. 【 】: 인용한 원전에 따라서 삭제한 것. 예; 【依】 依를 삭제한다는 말.
9. 『大正藏』: 『大正新脩大藏經』

10. SED: Sanskrit-English Dictionary, Sir Monier Monier-Williams, Oxford University Press, 1899

제이절 佛性門

불성의 뜻은 여섯 부문으로 나누어 논술한다. 첫째 出體門, 둘째 因果門, 셋째 見性門, 넷째 有無門, 다섯째 三世門, 여섯째 會通門이다.

第二明佛性義. 佛性之義六門分別. 一出體門. 二因果門. 三見性門. 四有無門. 五三世門. 六會通門.

제일항 出體門

출체문 안에는 또한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 여러 학설을 서술하고, 둘째, 여러 학설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다.

出體門內亦有二種(重). 先序諸說. 後判是非.

제일목 여러 가지 학설을 서술한다

예로부터 이 학설에 많은 학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뜻의 부류에 따라 서로 묶으면 여섯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昔來說雖有百家. 義類相攝. 不出六種.

I 내세의 불과를 불성의 체로 삼는다

첫째 학자의 주장은, 내세의 불과를 가지고 불성의 체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 『大般涅槃經』의 「獅子吼菩薩品」 제23에 있는 아래의 글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다.

“icchantika 등은 착한 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처님은 또한 그들도 내세에는 반드시 있을 것이므로 모두 다 불성이 있다고 한 말씀한 것이다.”¹⁸⁰⁾

그리고 또 말씀하신다.

“현재 세상에서는 번뇌의 인연으로 선근이 끊기지만, 미래에는 불성이란 힘의 인연 때문에 드디어 선근이 생겨나게 한다.”

그러므로 내세의 불과가 곧 불성의 정인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한 까닭은, 무명의 첫 생각에는 불성이 없지만, 그러나 벌써 마음이 있는 이는 곧 내세의 불과를 받을 성품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온갖 선행을 닦아 현재의 불과를 온전히 이루게 된다. 현재의 불과를 이루는 데에는 내세의 불과를 근본으로 삼는다. 그래서 내세의 불과를 논설하여 불성의 정인으로 삼는다. 이는 白馬寺의 <曇>愛法師가 <道>生¹⁸¹⁾公

* 忠南大學校 人文大學 哲學科 教授

180) 『大般涅槃經』

“一闍提等。 無有善法。 佛性亦善。 以未來有故。 一闍提等。 悉有佛性。(『大正藏』 12-769a)”

181) 鎌田茂雄, 『中國佛教史辭典』 p.278, 東京堂出版, 1981

의 뜻을 서술한 것이다.¹⁸²⁾

第一師云. 當有佛果. 爲佛性體. 如下師子吼中說言. 一闍提等無有善法. 佛亦言. 以未來有故悉有佛性. 又言. 以現在世煩惱因緣能斷善根. 未來佛性力因緣故遂生善根. 故知當果卽是正因. 所以然者. 無明初念不有而已有心卽有當果之性. 故修萬行以剋現果. 現果卽成當果爲本. 故說當果而爲正因. 此是白馬寺愛法師述生公義也.

道生(355~434)은, 東晉에서 劉宋時代에 걸쳐 활약한 스님으로, 속성은 魏氏이며, 河北省 涿鹿縣 출신이다. Kumārajīva 문하의 四傑 가운데의 한 사람이며, 廬山 白蓮社의 18현인 가운데의 한 사람으로 손꼽힌다. 竺法太를 따라서 출가하였으며, 15살 때에 강좌에 올랐기 때문에 당시의 명사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20살에 구족계를 받은 뒤에 명성이 더욱 높아져, 귀족과 명사들이 줄을 이어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하여 몰려들었다. 隆安年間(397~401)에 廬山에 들어가 慧遠에게 師事하고, 7년에 걸쳐서 경론을 연구하다가 뒤에 혜원의 제자인 慧叡·慧嚴·慧觀과 함께 長安으로 가서 Kumārajīva의 문하생이 되었다. 義熙5년(409)에 建康으로 돌아와 音園寺에서 수행하였으며, 景平1년(423)에는 佛大什과 智勝에게 간청하여 『五分律』 34권을 역출하도록 하였다. 경을 강의할 때를 보면 경문을 해석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경의 진의를 캐는 데에 주력하여, 善不受報義 및 頓悟成佛義 등의 새로운 학설을 제창하면서, 『二諦論』·『佛性當有論』·『法身無色論』·『佛無淨土論』·『應有緣論』 등을 저술하여, 贊否兩論을 일으켰다. 또 6권 『泥洹經』이 建康에 전래되었을 때에는, 아직 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은 icchantika성불설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異端邪說이라고 하여 맹렬한 비난을 받고, 虎丘山에 한 때 은거하다가 元嘉7년(430)에 다시 廬山으로 되돌아왔다.

182) 본문에는 “此是白馬寺愛法師述生公義也”라고 되어 있다.

黃山德, 『涅槃宗要』, 東國大學校, p.106, 1982

“이것은 백마사의 애법사가 생공의 뜻을 서술한 것이다.”

李英茂, 『校訂國譯·涅槃經宗要』, 大星文化社, p.161, 1984

“이는 백마사의 애법사 술생공의 뜻이다.”

布施浩岳, 『涅槃宗之研究』 後篇 pp.245~246, 國書刊行會, 1973

布施浩岳 선생은, 白馬寺 愛法師의 ‘愛’를 曇愛로, 生公의 ‘生’을 道生으로 논증하고 있으므로, 이를 따르기로 한다.

II 현세의 중생을 불성의 체로 삼는다

둘째 학자의 주장은, 현세에 있는 중생을 가지고 불성의 체로 삼는다는 것이다. 왜냐 하면, 중생의 작용은 통틀어 心法을 다스리며, 중생의 의의는 어디에서나 생명을 받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마음을 조어하는 주인은 내세에 반드시 대각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중생을 논설하여 정인의 체로 삼는다. 이 『大般涅槃經』의 「獅子吼菩薩品」 제23 가운데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다.

“중생의 불성은 또한 두 가지 인이 있다. 첫째는 정인이며, 둘째는 연인이다. 정인이란 모든 중생을 말하며, 연인이란 여섯 가지 빠라미따를 말하느니라.”¹⁸³⁾

장엄사의 僧旻¹⁸⁴⁾ 법사의 뜻이다.

183) 『大般涅槃經』

“衆生佛性亦二種因。一者正因。二者緣因。正因者謂諸衆生。緣因者謂六波羅蜜。(『大正藏』 12-775b)”

184) 鎌田茂雄, 『中國佛教史辭典』 p.217, 東京堂出版, 1981

僧旻(467~527)은, 속성은 孫氏이며, 梁 三大法師의 한 사람으로, 吳郡(江蘇省蘇州) 富春 출신이다. 7세에 출가하여 虎丘의 西山寺에서 수행하면서 僧回의 제자가 되었다. 13세에 僧回를 따라서 楊都로 가서 白馬寺에서 수행을 하는 도중, 16세 때에 스승을 잃고, 莊嚴寺로 이주하여 曇景에게 의탁해서 수행하였다. 僧柔·慧次 등에게 의탁하여 경론을 모두 통달하였다. 永明7년(489), 普弘寺에서 僧柔·慧次가 『성실론』을 강론할 때에 서로 논의하였는데, 이때 慧次를 경탄하게 하였다. 永明10년 26세 때, 처음으로 興福寺에서 『성실론』을 강의하여 크게 이름을 날렸다. 梁武帝의 신임을 얻어, 칙명으로 慧輪殿에서 『勝鬘師子吼一乘大方便方廣經』을 강의하였으며, 上定林寺에서는 석학 30인의 수장이 되어 一切經을 초출하여 80권으로 묶어냈다.

第二師云. 現有衆生. 爲佛性體. 何者. 衆生之用總御心法. 衆生之義 處處受生. 如是御心之主必當能成大覺. 故說衆生爲正因體. 如師子吼中言. 衆生佛性亦二種因. $\leq - \geq$ 者 \leq 正因. 二者緣因. 正因者 \geq 謂諸衆生也. 莊嚴寺旻(是)法師義也.

III 중생의 心性을 正因의 體로 삼는다

셋째 학자의 주장은, 중생의 마음은 목적과 달라서, 반드시 고뇌를 싫어하고 悅樂을 구하는 성품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온갖 선행을 닦아서 마침내는 가장 높은 보디bodhi의 낙과에 돌아오게 된다. 그러므로 심성을 논설하여 정인의 체로 삼는다. 이 『大般涅槃經』의 「獅子吼菩薩品」 제23에 있는 아래의 글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다.

“모든 중생은 모두 다 마음이 있다. 무릇 마음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내세에 안웃따라쌌약쌌보디anuttarā samyak-sambodhi를 이룰 것이니라.”¹⁸⁵⁾

또 『勝鬘師子吼一乘大方便方廣經(=夫人經)』에서 말씀하신다.

“세존이시여, 만일 여래장이 없으면 고뇌를 싫어하여 니르와나를 간절히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¹⁸⁶⁾

185) 『大般涅槃經』

“衆生亦爾. 悉皆有心. 凡有心者定當得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大正藏』12-769a)”

이러한 주장은 광택사의 <法>雲¹⁸⁷⁾ 법사의 뜻이다.

第三師云. 衆生之心異乎木石. 必有厭苦求樂之性. 由有此性故修萬行終歸無上菩提樂果. 故說心性爲正因體. 如下文言. 一切衆生悉皆有心. 凡有心者必當得成阿耨菩提. 夫人經言. 若無如來藏不〈下〉得厭苦求樂涅槃故. 此是光宅寺〔法〕雲法師義也.

IV 마음에 있는 神靈을 正因의 體로 삼는다

넷째 학자의 주장은, 마음은 신령을 가지고 있어 그 본성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마음의 신령스러움이 벌써 내 몸 안에 있으므로, 곧 목석 등의 비정물과는 다르다. 이 때문에 능히 대각의 과보를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마음의 신령스러움을 논설하여 정인의 체로 삼는다. 이 『大般涅槃經』 「如來性品」 제12에서 말씀하신다.

“我라는 것은 곧 여래장의 뜻이다. 모든 중생들이 모두 다 불성이 있

186) 『勝鬘師子吼一乘大方便方廣經』

“世尊. 若無如來藏者. 不得厭苦求樂涅槃(『大正藏』 12-222b)”

187) 鎌田茂雄, 『中國佛教史辭典』 p.341, 東京堂出版, 1981

法雲(467~529)은, 속성은 周氏이며, 梁 三大法師의 한 사람으로, 義興陽羨(河北省鎮江宜興) 출신이다. 7세에 출가하여 建康 莊嚴寺에서 수행하면서, 僧成·玄趣·寶亮의 제자가 되고, 13세 때에 비로소 수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中興寺 僧印에게서 「법화경」을 배웠다. 南齊 永明中(483~493)에 僧柔가 道林寺에서 강의를 할 때에 수학하면서 동학인 僧旻과 함께 이름을 날렸다. 建武4년(497) 여름, 妙音寺에서 처음으로 「法華」·「淨名」을 개강하여, 당시 아주 우수한 스님으로 이름을 날렸다. 梁武帝로부터 융숭한 대우를 받아, 칙명에 따라서 光宅寺로 들어갔다.

으므로, 이것이 곧 아라는 뜻이다.”¹⁸⁸⁾

이 『大般涅槃經』의 「獅子吼菩薩品」 제23 가운데에서 말씀하신다.

“불성이 아닌 것은 곧 담장·담벽·기와·돌 등의 무정물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무정물이 아닌 것을 불성이라고 이른다.”¹⁸⁹⁾

이러한 주장은 梁 나라의 武王 蕭焉¹⁹⁰⁾ 天子의 뜻이다.

第四師云. 心有神靈不失之性. 如是心神已在身內. 卽異木石等非情物. 由此能成大覺之果. 故說心神爲正因體. 如來性品云. 我者卽是如來藏義. 一切衆生悉有佛性卽是我義. 師子吼中言. 非佛性者謂瓦石等無情之物. 離如是等無情之物是名佛性故. 此是梁武蕭衍(焉)天子義也

V 알라야식인 본디 種子를 佛性の 體로 삼는다

다섯째 학자의 주장은, alaya식인 본디 종자를 불성의 체로 삼는다는

188) 『大般涅槃經』

“我者卽是如來藏義. 一切衆生悉有佛性. 卽是我義. 如是我義從本以來. 常爲無量煩惱所覆. 是故衆生不能得見.(『大正藏』12-648b)”

189) 『大般涅槃經』

“非佛性者. 所謂一切牆壁瓦石無情之物. 離如是等無情之物. 是名佛性.(『大正藏』12-828b)”

190) 鎌田茂雄, 『中國佛教史辭典』p.332, 東京堂出版, 1981

蕭衍(502~549在位)은, 梁武帝의 이름이며, 字는 叔達이고, 남조문화의 최고의 번성기를 출현시켜, 남조의 불교도 정점에 이르게 한 임금이다. 유학·문학을 깊이 연구하고, 불교를 돈독하게 신봉하였다. 천감 3년(504)에는 도교를 버리고 불교에 귀의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였으며, 동10년에는 스스로 斷酒肉文을 공표하고 불교도로서의 계율생활에 들어갔으며, 더욱이 동16년 3월에는 犧牲廢止의 명령을 내렸다.

것이다. 이 『大般涅槃經』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다.

“불성이라는 것은 모든 부처님의 안웃따라삼약삼보(anuttara samyak-sambodhi)의 중도종자이다.”¹⁹¹⁾

또 『瑜伽師地論』에서 말한다.

“本性住種姓이라는 것은, 모든 보디삿뜨와의 육처가 수승한 것을 말하며, 이와 같은 상이 있으므로, 시작이 없는 세계로부터 전전하여 전하여 오면서 법답게 얻어진다. 이것을 본성주종성이라고 이름한다.”¹⁹²⁾

이러한 주장은 新師¹⁹³⁾들의 뜻이다.

第五師言. 阿賴耶識法爾種子. 爲佛性體. 如此經言. 佛性者一切諸阿耨菩提中道種子. 瑜伽論云. 性種性者六處殊勝. 有如是相. 從無始世. 展轉傳來法爾所得. 此意新師等義.

VI 아말라식인 眞如의 깨달은 성품을 佛性の 體로 삼는다

여섯째 학자의 주장은, 아말라식(amala-vijñāna)인 진여의 깨달은 성품

191) 『大般涅槃經』

“佛性者. 卽是一切諸佛阿耨多羅三藐三菩提中道種子.(『大正藏』12-523c)”

192) 『瑜伽師地論』

“云何種姓. 謂略有二種. 一本性住種姓. 二習所成種姓. 本性住種姓者. 謂諸菩薩六處殊勝有如是相從無始世. 展轉傳來法爾所得. 是名本性住種姓. 習所成種姓者. 謂先串習善根所得. 是名習所成種姓.(『大正藏』30-478c)”

193) 深浦正文, 『唯識學研究』上卷p.290, 永田文昌堂, 1954

현장으로부터 시작하는 유식학을 신유식이라고 하며, 그 이전의 유식을 구유식이라고 한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新師는 현장을 개조로 하는 중국의 법상종을 가리킨다.

을 불성의 체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 『大般涅槃經』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다.

“불성이라는 것은 제일의공을 말하며, 제일의공을 이름하여 지혜라 한다.”¹⁹⁴⁾

또 『究竟一乘寶性論』에서 말한다.

“저 진여의 성품이라는 것은 이 뜻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六根聚經』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다. ‘육근은 이와 같이 무시로부터 그 아래로 드디어는 구경의 모든 법의 체이다’”¹⁹⁵⁾

여러 학자의 주장은 이와 같다.

第六師云 阿摩羅識眞如解性 爲佛性體 如經言 佛性者名第一義空 第一義空名爲智慧〈惠〉 寶性論云 及彼眞如性者 如六根聚經說 六根如是 從無始來畢竟究竟諸法體故 諸說如是.

제이목 여러 가지 학설의 옳고 그름을 가린다

여러 학설의 옳고 그름을 가린다는 것은, 위의 여러 학자의 주장이

194) 『大般涅槃經』

“佛性者名第一義空 第一義空名爲智慧.(『大正藏』12-767c)”

195) 『究竟一乘寶性論』

“及彼眞如性者 依此義故 六根聚經言 六根如是 從無始來畢竟究竟諸法體故.(『大正藏』31-835b)”

모두 옳기도 하고 그르기도 하다. 그러한 까닭은, 불성은 그런 것도 아니며,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학설이 모두 그르다고 생각하며,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학설이 다 옳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여섯 학자의 학설이 두 가지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처음의 한 학자는 내세에 있을 불과를 가리키는 것이며, 뒤의 다섯 학자는 모두 지금 가지고 있는 인을 근거로 한 것이다. 뒤의 다섯 학자 가운데에는 또 한 두 가지 대립되는 견해가 있으니, 뒤의 한 학자는 眞諦를 중심으로 한 것이고, 앞의 네 학자는 俗諦를 따르는 것이다. 俗諦를 따르는 네 학자의 학설은 人과 法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앞의 한 학자는 人을 들어 논술하고 있으며, 뒤의 세 학자는 법을 근거로 하여 논술하고 있는 것이다. 법을 근거로 한 세 학자의 주장은 起¹⁹⁶⁾와 伏¹⁹⁷⁾에 지나지 않으니, 뒤의 한 학자의 주장은 種子를 들어 말한 것이요, 앞의 두 학자의 주장은 上心을 들어 말한 것이다. 上心을 들어 말한 주장에는 뜻을 따라 학설을 달리 한 것뿐이다.

그러나 불성의 체는 바로 일심이며, 일심의 성품은 모든 邊見을 초월한 것이다. 모든 변견을 초월하였기 때문에 도무지 해당되는 것이 없다. 해당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것도 없다. 그러므로 마음을 근거로 하여 논술하면, 마음은 因도 아니고 果도 아니며, 진제도 아니고 속제도 아니며, 人도 아니고 法도 아니며, 起도 아니고 伏도 아니다.

196) 起utpada: 나타나는 것.

197) 伏nigraha: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 종자를 잃어버리기까지는 미치지 않은 상태로, 종자는 아직 있어도 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현행이 일어나지 못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緣을 근거로 하여 논술하면, 마음은 起도 되고 伏도 되며, 法도 되고 人도 되며, 속제도 되고 진제도 되며, 因도 되고 果도 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런 것도 아니며,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학자의 주장이 모두 그르기도 하고 모두 옳기도 하다는 것이다.

총체적으로 논술하면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분별하여 논술하면, 일심의 법에 두 가지 뜻이 있으니, 하나는 더럽게 물이 들지 않으면서 더럽데 물이 드는 것이며, 또 하나는 더럽게 물이 들면서 더럽게 물이 들지 않는 것이다.

더럽게 물이 들면서 더럽게 물이 들지 않는 것이라는 말은, 한 맛(一味)이며 적정하다는 뜻이고, 더럽게 물이 들지 않으면서 더럽데 물이 드는 것이라는 말은, 육도에 유전한다는 뜻이다. 이 『大般涅槃經』에 있는 아래의 글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다.

“한 맛인 약이 그 흘러가는 곳을 따라 여러 가지로 다르다. 그러나 이 약의 참 맛은 그 것이 흘러나온 산에 머물러 있다.”¹⁹⁸⁾

또 『勝鬘師子吼一乘大方便方廣經(=夫人經)』에서 말씀하신다.

“자성이 청정한 마음은 분명히 알기 어려우니라. 그러나 그 마음이 번뇌 때문에 더럽게 물들게 되는 것도 또한 분명히 알기 어려우니라.”¹⁹⁹⁾

198) 『大般涅槃經』

“一味隨其流處，有種種異，是藥眞味停留在山，(『大正藏』12-649b)”

『大乘起信論』 가운데에서는 이 뜻을 자세히 풀이하고 있으며, 이 학설은 Paramārtha(=眞諦) 삼장의 주장으로, 위에 든 여섯째 학자가 논술한 ‘진여·불성’이니, 더럽게 물이 들면서 더럽게 물이 들지 않는다는 부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앞의 다섯 학자의 주장은, 모두 더럽게 물이 들지 않으면서 더럽게 물이 든다는 부분에 해당한다.

왜냐 하면 染汚를 따르는 마음은 한 가지 성품을 지키지 못하고 인연을 대하여 과보를 바라보면 반드시 생겨나게 된다. 이렇게 생겨나는 것의 성품은 혼습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본디 종자’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니, 이는 다섯째 분의 주장이 이 부분에 해당한다.

또는 이와 같이 染汚를 따르는 마음이 전전하여 생멸하는 식의 계위를 짓지만, 그러나 늘 ‘신령스럽게 깨닫는 성품’을 잃지 아니한다. 이 ‘신령스럽게 깨닫는 성품’을 잃지 않기 때문에 마침내는 마음의 근원에 돌아온다는 것이니, 이는 넷째 분의 주장이 이 부분에 해당된다.

또는 염오를 따라 생겨나고 소멸하는 마음이 안에서 혼습하는 힘을 의지하여 두 가지 업을 일으킨다. 말하자면 고를 싫어하는 것과 낙을 구하는 능인이다. 이것이 근본이 되어 내세에는 극과에 이르는 것이니, 이는 셋째 분의 주장이 이 부분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일심이 염오를 따라 전전할 때에 이르는 곳을 따르면서 모든 법을 통틀어 제어하여 곳곳에서 생명을 받으니 이것을 ‘중생’이라고 이름한다. 이는 둘째 분의 주장이 이 부분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중생의 본각이 전전하는 바, 반드시 미래에는 대각의 과위에 이르게 되지만, 그러나 지금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199) 『勝鬘師子吼一乘大方便廣經』

“自性清淨心，難可了知，彼心爲煩惱所染亦難可了知。(『大正藏』12-222c)”

‘미래의 불과’라고 이름한다. 이는 첫째 분의 주장이 이 부분에 해당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여섯 분의 말씀이 비록 다 불성의 실체를 완전하게 설명하지는 못하였지만, 각기 부분적으로 말씀하였으므로 일리는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大般涅槃經』에 있는 아래의 글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다.

“저 눈먼 사람이 각기 코끼리에 대하여 말하는 것과 같으므로, 비록 코끼리의 실체를 얻지는 못하였지만, 그렇다고 코끼리를 말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불성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와 같다. 여섯 가지 법에 상극한 것도 아니며 여섯 가지 법을 벗어난 것도 아니다”²⁰⁰⁾

이 가운데에서 여섯 분의 학설도 또한 그러한 줄을 알아야 한다. 불성의 체를 나타내는 부문을 마친다.

次判是非者. 此諸師說皆是非. 所以然者. 佛性非然非不然故. 以非然故諸說悉非. 非不然故諸義悉是. 是義志云何. 六師所說不出二途. 初一指於當有之果. 後五同據今有之因. 此後五中. 亦爲二對(倒). 後一在於眞諦. 前四隨於俗諦. 俗諦四說不出人法. 前一舉人. 後三據法. 據法三義. 不過起伏. 後一種子. 前二上心. 上心之內. 隨義異說耳. 然佛性之體. 正是一心. 一心之性. 遠離諸邊. 遠離諸邊故都無所當. 無所當故. 無所不當. 所以就心論. 心非因非果非眞非俗非人非法非起非伏. 如其約緣論. 心爲起爲伏作法作人爲俗爲眞作因作果. 是謂非然非不然義. 所以諸說皆非皆是. 總說雖然. 於中分別者. 於一心法有二種義. 一者不染而染. 二者染而不染. 一味寂靜.

200) 『大般涅槃經』

“如彼盲人 各各說象 雖不得實 非不說象 說佛性者 亦復如是 非卽六法 不離六法.(『大正藏』12-802b)”

不染而染. 流轉六道. 如下文言. 一味 \leq 之 \geq 藥隨其流處有種種味. 而其眞味停留在山. 夫人經言. 自性清淨心難可了知了知. 彼心爲煩惱所染. 此亦難可了知. 起信論中廣顯是義. 此者眞諦三藏之義. 第六師說. 眞如佛性得於染而不染門也. 前之五義皆在染門. 何者. 隨染之心不守一性. 對緣望果必有可生. 可生之性不由熏成. 是故說名法爾種子. 第五師義得此門也. 又卽如是隨染之心乃至轉作生滅識位而恒不失神解之性. 由不失故終歸心原. 第四師義亦當此門也. 又苦隨染生滅之心依內熏力起二種業. 所謂厭苦求樂之能因. 此爲本當至極果. 第三師義當此門也. 如是一心隨染轉時. 隨師至處總御諸法處處 受 生說名衆(受)生. 第二師義合於是門也. 如是衆生本覺所轉必當得至大覺之果. 而今未(來)現說名當果. 第一師義合於是門也. 由是義故. 六師所說雖皆未盡佛性實體隨門而說各得其義. 故下文說如彼盲人各各說象. 雖不得實非不說象. 說佛性者亦復如是. 不卽六法不離六法. 當知此中六說亦爾. 出體門竟.

제이항 因果門

제일목 통틀어 論說한다

불성의 체는 인도 아니며, 과도 아니다. 그렇지만 또 인위와 과위의 성품이 아닌 것도 아니다. 그러한 까닭은 체를 들어서 인으로 삼고 과로 삼기 때문이다. 과위의 불성이란 붓다의 체성이기 때문에 불성이라고 부른다. 이 『大般涅槃經』 「迦葉品」 제24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부처님의 十力²⁰¹⁾과 四無畏²⁰²⁾ 등의 한량이 없는 모든 법이 붓다

님의 성품이다.”²⁰³⁾

또 이 『大般涅槃經』에 있는 아래의 글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다.

“붓다님은 벌써 ‘가장 높은 깨달음Anuttara samyak sambodhi’를 얻었기 때문에, 모든 불성과 모든 부처님의 법은 언제나 변하거나 바뀌는 일이 없다. 그러므로三世가 없는 것이 마치 허공과 같다.”²⁰⁴⁾

201) 十力 Daśa balāni

- ① 處非處智力: 도리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변별하는 지혜의 힘
- ② 業異熟智力: 하나하나의 業因과 그 果報와의 관계를 여실히 아는 지혜의 힘
- ③ 靜慮解脫等持等至智力: 四禪・八解脫・三三昧 등의 선정을 아는 지혜의 힘
- ④ 根上下智力: 중생의 근기의 上下優劣을 아는 지혜의 힘
- ⑤ 種種勝解智力: 중생의 여러 가지 바람을 아는 지혜의 힘
- ⑥ 種種界智力: 중생이나 제법의 본성을 아는 지혜의 힘
- ⑦ 遍趣行智力: 중생이 지옥・Nirvāṇa 등 어느 곳으로 갈 것인가를 아는 지혜의 힘
- ⑧ 宿住隨念智力: 자타의 과거세의 것을 생각해내는 지혜의 힘
- ⑨ 死生智力: 중생이 이 세상에서 죽은 다음 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아는 지혜의 힘
- ⑩ 漏盡智力: 번뇌를 끊은 경지와 그 곳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을 여실히 아는 지혜의 힘

202) 四無畏

부처님이 가지시는 두려움이 없는 지혜를 말함.

- ① 正等覺無畏: 모든 法을 평등하게 깨달아서 다른 사람의 詰難을 두려워하지 아니함.
- ② 漏永盡無畏: 번뇌를 다 끊어서 外難을 두려워하지 아니함.
- ③ 說障法無畏: 惡法이菩提에 장애가 됨을 말하여 다른 사람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함. ④ 說出道無畏: 고타의 세계를 벗어나는 도리를 말하여 어떠한 비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함.

203) 『大般涅槃經』

如來十力四無所畏。大慈大悲三念處。首楞嚴等八萬億諸三昧門。三十二相八十種好。五智印 等三萬五千諸三昧門。金剛定等四千二百諸三昧門。方便三昧無量無邊。如是等法是佛佛性。(『大正藏』12-818a)

204) 『大般涅槃經』

如來已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所有佛性一切佛法常無變易。以是義故無有三世猶如虛空。(『大正藏』12-828b)

이런 것들과 같은 경의 글은 모두 果位の 佛性を 증명하는 것이다. 因位の 불성이란 부처를 만드는 성품이다. 그러므로 불성이라고 부른다. 이 『大般涅槃經』 「獅子吼菩薩品」 제23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이것은 因位이며 果位가 아니기 때문에, 이름하여 불성이라고 한다. 이것은 因生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因이며 果가 아니다.”²⁰⁵⁾

또 이 『大般涅槃經』에 있는 아래의 글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다.

“중생의 불성에도 또 두 가지의 因이 있다. 첫째는 正因이며, 둘째는 緣因이다. 정인이란, 모든 중생을 말하며, 緣因이란, 여섯 가지 빠라미 따를 말한다”²⁰⁶⁾

이런 것들과 같은 경의 글은 모두 因位の 佛性を 논설하는 것이다.

第二明因果門者. 佛性之體 非因非果 而亦不非因果性. 所以舉體 作因作果. 果佛性者 佛之體性 故名佛性. 如迦葉品云. 如來十力四無畏等 無量諸法 是佛之性. 又下文言. 如來已得阿耨菩提 所有佛性 一切佛法 常無變易. 故無三世 猶如虛空. 如是等文 明果佛性.

因佛性者. 作佛之性 故名佛性. 如獅子吼品中言. 是因非果 名爲佛性. 非因生故 是因非果. 又下文言. 衆生佛性 亦二種因. 正因者 謂諸衆生. 緣因者謂六波羅蜜. 如是等文 說因佛性.

205) 『大般涅槃經』

是因非果名爲佛性. 非因生故是因非果.(『大正藏』 12-774c)

206) 『大般涅槃經』

衆生佛性亦二種因. 一者正因. 二者緣因. 正因者謂諸衆生. 緣因者謂六波羅蜜.(『大正藏』 12-775b)

제이목 분석하여 논설한다

통틀어 말하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 가운데서 분별하면 果位의 佛性에 두 가지가 있으며, 생겨나는 바의 果와 깨달은 바의 果이다. 깨달은 바의 果는 니르와나의 果위를 가리키며, 이는 곧 법신불이다. 생겨나는 바의 果는 깨달음bodhi의 果위를 가리키며, 이는 곧 보신불이다. 이 두 가지의 果위에 대하여 두 가지의 불성을 논설한다. 법신불의 성품은 본성이 청정한 부문에 있으며, 보신불의 성품은 염을 따라서 작용한 부문에 있다. 이 『大般涅槃經』 「獅子吼菩薩品」 제23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선남자야, 내가 말하는 바의 니르와나의 인이란, 말하자면 불성이다. 불성이란 성품은 니르와나를 놓지 않으므로, 나는 니르와나는 인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주 잘 번뇌를 깨뜨리므로, 큰 果라고 부른다. 이 果는 도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므로, 果가 아니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니르와나는 인도 아니고 果도 아니다.”²⁰⁷⁾

이런 것들과 같은 경의 말씀은 법신불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만 숨은 뜻을 나타내어 인과 果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大般涅槃經』 「迦葉品」 제24 에서 말씀하신다.

“불성이란, 일 법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십 법이라고 말할 수도 없으며, 백 법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천 법이라고 말할 수도 없으며, 만

207) 『大般涅槃經』

云何說言涅槃之體無因無果。佛言。善男子。我所宣說涅槃因者所謂佛性。佛性之性不生涅槃。是故我言涅槃無因。能破煩惱故名大果。不從道生故名無果。是故涅槃無因無果。(『大正藏』 12-784a)

법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아직 ‘가장 높은 깨달음 Anuttara samyak sambodhi’를 얻지 못하였을 때, 온갖 선·불선·무기를 모두 불성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²⁰⁸⁾

“불성이 아닌 것이란, 말하자면 온갖 담·벽·기와·돌등의 정이 없는 사물을 가리킨다. 이들과 같은 정이 없는 사물을 제외하고는, 이것을 불성이라고 부른다.”²⁰⁹⁾

이런 것들과 같은 경의 말씀은 보신불의 성품을 밝힌 것이다. 그것은 염을 따라서 움직이는 마음으로서, 비록 三性에 공통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또한 신령스러운 깨달음의 성품을 잃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보신불의 성품이라고 말한다.

다만 簡別하기 위하여, 법신불의 본성을 드러내는 부문에서는 모든 유정·무정을 두루 하며, 그러므로 보신불의 본성을 드러내는 부문에서는 무정의 사물은 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總說雖然. 於中分別者. 果有二種. 所生所了. 所了果謂涅槃. 果卽是法身. 所生果者謂菩提. 果卽是報佛. 對此二果. 說二佛性. 法佛性者. 在性淨門. 報佛性者. 在隨染門. 如師子吼中言. 善男子. 我所宣說涅槃因者. 所謂佛性之性. 不生涅槃. 是故無因. 能破煩惱. 故名大果. 不從道生. 故名無果. 是故涅槃. 無因無果. 是文正顯法佛之性. 唯約隱顯. 說爲因果也. 迦葉品云. 夫佛性者. 不名一法. 不名萬法. 未得阿耨菩提之時. 一切善不善無記法. 盡名佛性. 非佛性者. 所謂一切牆壁瓦石無情之物. 離如是等無情之物.

208) 『大般涅槃經』

夫佛性者不名一法. 不名十法不名百法. 不名千法不名萬法. 未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時. 一切 善不善無記盡名佛性.(『大正藏』12-828a)

209) 『大般涅槃經』

非佛性者所謂一切牆壁瓦石無情之物. 離如是等無情之物..(『大正藏』12-828b)

是名佛性。是文正明報佛之性。以隨染動心。雖通三性。而亦不失神解之性。故說此爲報佛性。但爲簡別。怯佛性門。遍一切有情無情。是故於報佛性。不取無情物也。

제삼목 통틀어 논설한다

분별하는 부분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에 나아가서 공통되는 점을 논설하면 본성이 청정한 본각도 또한 보신과 응신의 두 불신의 성품이 되며, 염을 따르는 깨달은 성품도 또한 범신²¹⁰⁾의 인이 되는 것이다. 무엇을 가지고 그런 줄 아는가? 『究竟一乘寶性論』에서 말한다.

“두 가지 불성에 의지하여 세 가지 佛身을 나타낼 수 있다.”²¹¹⁾

『佛性論』 가운데서도 이런 뜻을 나타내어 논설한다.

“불성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자성에 안주하는 불성이며, 둘째는 인출불성이다. 이 두 불성으로 인하여 성취를 이룬다. 자성에 안주하는 불성을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땅 속의 보장의 비유를 말씀하고, 인출불성을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암라수의 싹을 비유로 삼아 말씀하신다. 이 두 가지의 인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세 가지 불신의果

210) 범신dharma-kāya: 3身の 하나. 또, 法身·法身佛·自性身·法性身·寶佛 등이라고 한다. 說一切有部에서는, 佛陀가 說한 正法, 혹은 十力 등의 功德法을 말함. 法의 集會. 大乘에서는 究極·絕對의 存在를 말하고, 一切의 존재는 그것의 나타남이라고 풀이한다. 眞理를 몸으로 하고있는 것이란 뜻. 眞理 그 自體. 永遠의 理法으로서의 佛陀. 本體로서의 身體. 그것은 純粹하여 差別하는 性질이 없으며, 空과 같은 것이다.

211) 『究竟一乘寶性論』

依二種佛性。得出三種身。(『大正藏』31-839a)

位를 말씀하신다. 첫째는 자성에 안주하는 불성으로 인하여 법신을 말씀하며, 법신에는 네 가지 공덕이 있다. 그러므로 부패한 누더기 속의 진금의 비유를 말씀하신다. 둘째는 인출불성으로 인하여 응신을 말씀하며, 응신에는 네 가지 공덕이 있다. 그러므로 가난하고 미천한 여인이 전륜성왕을 잉태한 비유를 말씀하신다. 셋째는 인출불성으로 인하여 다시 화신을 낳으며, 화신에는 세 가지 일이 있다. 그러므로 아라한 가운데의 불상을 말씀하여 비유로 삼는다. 내지 자세하게 말씀하신다.”²¹²⁾

212) 『佛性論』

佛性有二種. 一者住自性性. 二者引出性. 諸佛三身. 因此二性故得成就. 爲顯住自性故. 說地中 寶藏譬. 此住自性佛性者. 有六種德故如寶藏. 一者最難得. 佛性亦爾. 於無數時節. 起正勤心. 因福德智慧滿足莊嚴. 方始顯現故. 譬如意寶藏. 由勝因乃感. 二者清淨無垢. 由佛性與煩惱不 相染故. 是故譬如意寶. 不爲不淨所污. 三者威神無窮. 明六神通等功德圓滿故. 如意寶亦爾. 隨意能辦故說寶藏譬. 四者能莊嚴一切世間功德善根. 於一切處相稱可故. 如意寶亦爾. 能爲世間 種種莊嚴具. 五者最勝. 於一切法中無與等故. 亦如意寶. 物中最勝故. 說寶藏爲譬. 六者八種 世法中無有變異. 爲十種常住因故. 眞寶亦爾. 雖燒打磨不能改其自性故. 取寶藏以譬住自性佛性. 二者引出佛性. 從初發意. 至金剛心. 此中佛性名爲引出. 言引出者. 凡有五位. 一能出闍提位. 二能出外道位. 三出聲聞位. 四出獨覺位. 五出菩薩無明住地位. 此法身能破煩惱[穀-禾+卵]. 其體顯現故. 第六說菴羅樹芽爲譬. 如彼樹芽. 能破皮肉. 得出生爲大樹王故. 說引出佛性. 如菴羅樹芽能生大樹王故. 爲約此兩因故. 佛說三身果. 一者因住自性佛性故說法身. 法身有四 種功德. 是故第七說敗帛裹眞金譬. 四功德者. 一自性有. 如金本有. 非所造作. 二清淨. 如金本淨塵垢不能染污. 三爲一切功德所依處. 如金能感種種貴物故. 四平等所得. 謂一切衆生並同應得. 如金無的主衆人共有. 隨其功力修者即得. 故說法身猶如眞金. 二者因引出佛性故說應身. 應身有四種功德. 是故第八說如貧賤女人有轉輪王胎. 四功德者. 一依止. 依止者. 三十七道品. 是所依止. 二者正生. 謂欲得應得. 卽是未知欲知根. 三者正住. 謂正得. 卽是知根. 四正受用. 卽知己根. 合此四義. 名爲應身. 如胎中轉輪王子. 亦有四義. 一以宿業爲依止. 二未得王位欲得如初生. 三正得王位如住. 四得已不失如受用. 是故應身以胎中轉輪王爲譬. 三者因引出佛性. 復出化身. 化身者. 有三事. 一有相. 如水中月. 以影相爲體故. 二由功力. 以宿願所作故. 三有始有終故. 第九立摸中佛像爲譬. 釋曰. 三義者. 一有相貌. 譬如月影. 但似而不眞實. 化身亦爾. 非實體故. 二由人工造作者. 譬化身宿願所起. 三明有始有終者. 譬化身隨緣變化故能有始有終.(『大正藏』31-808b~809a)

이 論의 뜻은, 틀림없이 얻은 因 속에 세 가지 불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틀림없이 얻는 인은 理를 體로 삼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마치 자성이 청정한 부문 가운데의 眞如라는 불성이 공통으로 세 가지 불신이 되는 것과 같다. 그래서 正因이 되는 것이다. 위에서 벌써 자성이 청정한 본각은 생겨나고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나 두 가지 불신이 될 수 있는 정인이 되는 것이라고 논설한다.

그러므로, 染을 따르는 깨달은 성품이 비록 常住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法身을 이루는 正因의 성품이 되는 것임을 꼭 알아야 한다. 『不增不減經』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다.

“곧 이 法身은 煩惱에 얽히어서 無始로부터 그 이래로 世間을 隨順하고, 물결에 漂流하면서 가고 오며 생겨나고 죽는 이를 이름하여 衆生이라고 하며, 온갖 더러움을 벗어나 편안²¹³⁾에 머물고, 온갖 法에서 自在한 힘을 얻은 이를 이름하여 如來·應供²¹⁴⁾·正遍知라고 한다. 내지 자세하게 말씀하신다.”²¹⁵⁾

『大乘起信論』 가운데에서도 이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비유를 들어

213) 미혹의 생존인 이쪽을 此岸이라고 하고 이에 대해서 깨달음의 世界인 저쪽을 彼岸이라고 한다. pāramita(=波羅蜜多)의 번역, 자세히 말하면 到彼岸이라 번역한다. 곧 미혹의 이 세상에서 깨달음의 彼岸에 도달하는 것.

214) 붓다님의 十號 가운데 하나이며, 붓다님은 一切의 惡을 끊어 없앤 분이기에 모든 過誤가 없어 헤아릴 수 없는 福田이 淸淨하므로 人間이나 天上 등 모든 衆生들의 供養을 받으실 분이기에 應供이라 한다. 이는 偉大한 지도자라는 뜻이다.

215) 『不增不減經』

即此法身過於恒沙。無邊煩惱所纏從無始世來隨順世間。波浪漂流往來生死名爲衆生。舍利弗。即此法身厭離世間生死苦惱。棄捨一切諸有欲求。行十波羅蜜。攝八萬四千法門。修菩提行名爲菩薩。復次舍利弗。即此法身離一切世間煩惱使纏過一切苦。離一切煩惱垢。得淨得淸淨。住於彼岸淸淨法中。到一切衆生所願之地。於一切境界中究竟通達更無勝者。離一切障離一切礙。於一切法中得自在力。名爲如來應正遍知。(『大正藏』16-467b)

논변한다.

“예를 들면, 큰 바다의 물이 바람으로 말미암아 큰 물결을 일으키고 있을 때에는 물결의 출렁거리는 모습과 바람결의 움직이는 모습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이것을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물 자체는 움직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만일에 바람이 멈추게 되면 물결의 출렁거리는 모습만 멈출 뿐이며, 본디의 축축한 성질은 파괴되는 것이 아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본디 갖추고 있는 <자성이 맑고 깨끗한 마음>이 무명이란 바람으로 말미암아 큰 물결을 일으키고 있을 때에는, <자성이 맑고 깨끗한 마음>과 무명과는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이것을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지 자세하게 논설한다.”²¹⁶⁾

이 뜻은, 法身이 비록 움직이는 모습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고요한 성품도 벗어난 것을 밝히려는 것이다. 無明의 바람을 따라 몸뚱이를 받들어서 뒹굴어도, 뒹구는 마음은 신령스러운 성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뒤에 다시 無明을 되돌려 근본으로 되돌아오게 하며, 근본에 되돌아 올 때, 다시 法身을 이룬다. 그러므로, 染을 따라서 움직이는 마음이 바로 고요한 法身으로 되돌아오는 인이 되는 것임을 꼭 알아야 한다.

만일 이 부문에 의하면 法身도 또한 法을 만든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모든 행을 닦음으로써 비로소 고요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216) 『大乘起信論』

如大海水因風波動。水相風相不相捨離。而水非動性。若風止滅動相則滅。濕性不壞故。如是衆生自性清淨心。因無明風動。心與無明俱無形相不相捨離。(『大正藏』32-576c)

『入楞伽經』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다.

“만일 여래의 法身이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곧 이것은 몸이 아니다.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수행한 일이 있다고 말한다면, 온갖 행은 곧 허망한 것이기 때문이다.”²¹⁷⁾

佛性の 因位와 果位에 관한 부문의 논설을 마친다.

別門雖然. 就實通論者. 性淨本覺. 亦爲二身之性. 隨染解性. 亦作法身之因. 何以知其然者. 如實性論言. 依二種佛性. 得出三種身. 佛性論中. 顯是意言. 佛性有二種. 一者住自性性. 二者引出佛性. 爲顯住自性性故. 說地中寶藏爲譬. 爲顯引出佛性故. 說掩羅樹芽爲譬. 約此兩因故. 佛說三身果. 一者因住自性佛性. 故說法身. 法身有四種功德. 是故說毀敗布裏眞金譬. 二者因引出佛性. 故說應身. 故說貧女. 如壞輪王譬. 三者因引出佛性. 故復出化身. 故說羅漢中佛像爲譬. 乃至廣說. 此論意者. 應得因中. 具三佛性. 彼應得因. 如理爲體. 故如性淨門中眞如佛性. 通爲三身. 而作正因. 既說性淨本覺. 雖非生滅. 而得與二身作正因. 當知隨染解性. 雖非常住. 而與法身. 作正因性. 如不增不減經言. 卽此法身煩惱纏. 無始世來. 隨順世間. 波浪漂流. 去來生死. 名爲衆生. 離一切垢. 住於彼岸. 於一切法. 得自在力. 名爲如來應供正遍知. 乃至廣說. 起信論中爲顯是意故引喻言. 如海水因風波動. 水相風相不相捨離. 如是衆生自性清淨心. 因無明風動. 心與無明. 不相捨離. 乃至廣說. 是意欲明法身. 雖非動相. 而離靜性. 隨無明風. 舉體動轉. 動轉之心. 不失解性. 後復無明還至歸本. 歸本之時. 還成法身. 是故當知隨染動心正爲還靜法身之因. 若依是門. 得說法身亦是作法. 以修諸行始得成靜故. 如楞伽經言. 若如來法身 非作法者. 言有修行無量功德. 一切行

217) 『入楞伽經』

若如來法身非作法者則是無身. 言有修行無量功德一切行者則是虛妄. (『大正藏』16-550a)

者皆是虛妄故. 因果門竟.

제삼항 見性門

佛性を 보는 것을 밝히는 부문이란, 말하자면 어느 계위에 이르러서佛性を 볼 수 있는가를 논설하는 것이다. 어떤 분은, 佛性和 法界는 비록 둘이 아닌 體라고 하더라도, 뜻이 같은 것이 아니므로, 계위를 보는 것도 또한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初地²¹⁸⁾에서 眞如·法界를 證得하여 보지만, 그러나 아직 佛性の 뜻은 볼 수 없다. 이어서 第十地²¹⁹⁾에 이르러서도 아직 귀로 들어 보며, 妙覺位²²⁰⁾에 이르러서야 바야흐로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이 학설은 了達한 것이 아니니, 글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하면, 경전의 곳곳에서 모두 初地 보디쌍뜨와가 法界를 증득하여 본다고 말씀하기 때문이다. 法界와 佛性은 이름은 다르지만 뜻은 같다. 그래서 비록 法界를 증득한다고 하더라도, 佛性を 보지 못한다고 言論하는 것은, 마땅히 도리에 맞지 않으며, 모든 경전의 글에

218) 大乘佛敎에서 보살이 닦아 행하는 階位 52位 가운데 41位에 해당하는 歡喜地를 말한다. 이 계위에 이르면 眞如의 理致를 밝게 觀照하여 어떠한 逆境에도 참고 견디어 밝은 지혜로써 상대를 감화시키므로 환희지라고 한다. 환희지는 가장 寬厚한 德을 갖추어 아무리 나쁜 動物이나 植物을 가리지 않고 포용하므로, 歡喜地에 이른 보디쌍뜨와의 덕을 그에 견주어 地上 보디쌍뜨와라고 한다. 이 地上에 열 단계가 있으며, 그 첫째 단계의 보디쌍뜨와이다.

219) 보디쌍뜨와가 수행하는 52位 가운데 50位인 第十地로서 法雲地를 말한다. 이 지위는 보디쌍뜨와의 因位가 完成되어 滿足하게 되었으므로 大法의 智慧와 慈悲의 구름으로 甘露의 비를 내려서 모든 중생들을 이익이 되게 하는 수행의 계위이다.

220) 大乘佛敎에서 修行하여 부처를 이루는 52位の 마지막 지위를 말한다. 이 지위에 이르면 스스로 깨닫고 남을 깨닫게 하여 깨달음이 圓滿하여 가히 思議할 수 없으므로 妙覺이라 하며, 곧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의 지위인 無上正等正覺 Anuttara samyak sarbodbhi를 말한다.

어긋나는 것이다.

다음에는 틀림없이 자세하게 논설하려고 한다. 진실 그대의 뜻은, 만일 初地에서 法界를 증득할 수 있다고 하면, 이 계위에 닿자마자 벌써 佛性を 보는 것이며, 만일 第十地에서도 아직 佛性を 보지 못한다면, 또한 그 계위에서도 이직 法界를 보지 못하는 것이 된다. 이런 뜻을 나타내려고 하여 三重으로 나누어 논설한다. 첫째는 究竟이나·究竟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여 보는 부문이며, 둘째는 普遍이나·普遍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여 보는 부문이고, 셋째는 證得이나·證得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여 보는 부문이다.

次第三明見性門者. 謂至何位. 得見佛性. 有人說言. 佛性法界雖無二體而義不同. 見位亦異. 是故初地證見眞如法界 而未能見佛性之義. 乃至十地猶是聞見. 至妙覺位. 方得眼見. 是說不了. 違文義故. 何者. 處處皆說初地菩薩證見法身. 法身佛性名異義一. 而言雖證法身不見佛性者. 不應道理違諸文. 次當廣說. 如實義者. 若於初地. 得證法界. 卽於此位. 已見佛性. 若第十地未見佛性. 亦於彼位. 未見法界. 欲顯是義三重分別. 一者究竟不究竟門. 二者遍不遍門. 三者證不證門.

제일목 究竟·不究竟門

만일 究竟이나·究竟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여 보는 부문에서 본다면, 오로지 부처님의 경지에서만 눈으로 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에 究竟을 이루어 한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와서 佛性の 全分の 體를 증득하여 보기 때문이다. 금강유정²²¹⁾ 이전에는 아직 눈으로 볼

221) 大乘佛敎에서 修行하여 妙覺의 지위인 붓다를 이루기 전인 第十地의 지위를 말한

수 없으며, 오로지 우리러 믿을 뿐이므로, 다만 귀로 들어서 본다고 말한다. 그것은 아직 한 마음의 근원에 이르지 못 하였으므로, 불성의 전분의 체를 證得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불성에 관해서 말한 것처럼 법계도 또한 그러하며, 그 밖의 일체의 경계도 또한 모두 그와 같은 것이다.

若就究竟不究竟門. 唯於佛地得名眼見. 此時究竟. 歸一心原. 證見佛性之全分體故. 金剛以還. 未得眼見. 宜是仰信. 但名聞見. 以其未至一心之原. 不證佛性全分體故. 如說佛性. 法界亦爾. 餘一切境皆亦如是.

제이목 遍·不遍門

만일 둘째는 普遍이나 · 普遍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여 보는 부문에서 본다면, 初地 이상에서는 佛性を 눈으로 보는데, 그것은 두루 모든 遍計所執²²²⁾을 버리고, 두루 모든 꼭 찬 불성을 보기 때문이다. 初地 이전의 凡夫나 二乘의 聖人은 믿음이 있는 믿음이 없든 모두 그것을 볼 수 가 없는데, 그것은 아직 모든 분별을 벗어나지 못하여 꼭 찬 법계를 증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若就第二遍·不遍門. 初地以上眼見佛性. 遍遣一切遍計所執. 遍見一切遍滿佛性故. 地前凡夫二乘 聖人有信不信齊未能見. 以未能離一切分別. 不能證得遍滿法界故.

다. 이 지위에 이르면 修行의 因位는 끝났으나 아직 붓다의 지위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이다.

222) 遍計所執: 이리저리 臆測하여 周遍計度한다는 뜻이며, 計度이란 자기의 의식의 작용으로써 是·非·善·惡의 여러 가지 사물을 헤아리고 분별하는 차별적 집착을 일으키는 것이다. 또 이 집착은 일체 사물에 대하여 주관적 색채를 띠고 보는 것이므로 周遍이라 한다. 所執은 遍計에 의하여 잘못보이는 대상, 곧 주관의 눈으로 대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항상 잘못 분별하는 것을 遍計所執性이라고 한다.

제삼목 證·不證門

만일 셋째는 證得이나·證得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여 보는 부문에서 본다면, 二乘의 聖人は 佛性을 볼 수 있지만, 모든 凡夫는 아직 볼 수 없다. 그러한 까닭은, 두 가지 空²²³⁾을 이룬 眞如가 곧 佛性인데, 이승의 성인은 비록 두루 보지는 못하지만, 人空을 이룬 부문을 의지해서 眞如를 證得한다. 그러므로 또한 불성을 눈으로 본다고 말할 수 있다. 이 『大般涅槃經』 「長壽品」 제4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만일 세 가지 法에서 異相을 닮으면, 꼭 알아야 한다. 이 무리의 청정한 三歸는 곧 의지할 곳이 없다. 모든 금계를 두루 구족하지 못하며, 드디어는 聲聞·緣覺·보디bodhi果도 깨달을 수가 없음을 알아 두라.”²²⁴⁾

그런데 어떻게 하물며 가장 높은 菩提를 얻을 수 있겠는가. 이 글은, 만일 二乘의 경지에 든 사람이 觀²²⁵⁾에 들었을 때, 오로지 三寶를 취하여 人·法의 異相만을 밝히려고 하면, 삼보는 체가 같은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다. 人空으로는 곧 無漏²²⁶⁾의 성스러운 戒律을 갖출 수 없으며,

223) 二空: 我空과 法空을 말한다. 중생은 五蘊이 假和合한 것을 我라 하지만, 我라고 할만한 實體가 없다고 보는 것을 我空이라고 하며, 또는 五蘊의 自性도 空하다고 보는 것을 法空이라고 한다.

224) 『大般涅槃經』

若於三法修異想者。當知是輩清淨三歸則無依處。所有禁戒皆不具足。終不能證聲聞緣覺菩提之果。(『大正藏』12-622b)

225) 觀vipassana: 불교 수행의 한 방법으로서 妄惑을 관찰하여 끊고 진리의 세계를 達觀하는 것으로 智慧를 말한다. 觀에는 大乘的인 修行法으로서의 다섯 가지의 停心觀 등이 있다. 止를 定이라 하고, 慧를 觀이라 하여 예로부터 불교의 二大修行法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226) 무루anasrava: 漏asrava는 누설·누락의 뜻으로 모든 번뇌를 말한다. 즉 眼·耳·鼻·舌·身·意의 六根에서 허물을 항상 만들어 누출한다는 뜻이다. 이런 번뇌에서 이탈하여 그것이 없어지고 증가함이 없음을 無漏라하며 四聖諦 가운데의 道諦에서

또한 남김없이 無生智²²⁷⁾도 얻을 수 없다. 이것은 곧 그가 삼보는 한 몸인 것을 證見할 수 있으므로, 또한 이승·보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거꾸로 나타내는 것이다. 삼보는 한 몸인 것이 곧 불성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또한 불성을 볼 수 있다고 논설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그 사람은 비록 실제로는 불성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것이 불성이라고 알 수 없을 뿐이다. 마치 그것은 眼識²²⁸⁾이 푸른 빛을 보면서도 그것이 푸른빛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비록 아직 그것이 푸른빛임을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안식은 실제로는 푸른빛을 보고 있다. 이승이 불성을 보는 것도 또한 이와 같음을 꼭 알아야 한다. 證得이나·證得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여 보는 부분의 글의 뜻은 이와 같다.

若依第三證不證門。二乘聖人得見佛性。一切凡夫未能得見。所以然者。二空眞如卽是佛性。二乘聖人雖非遍見。依人空門。證得眞如。故亦得說眼見佛性。如長壽品言。若於三法修異相者。清淨三歸卽無依處。所有禁戒皆不具足。尙不能得聲聞緣覺菩提之果。何況能得無上菩提。是文欲明若二乘人入觀之時。唯取三寶。人法異相。不證三寶同體。人空卽不能具無漏聖戒。亦不能得盡無生智。是卽反顯彼能證見三寶一體故。亦能得二乘菩提。三寶一體卽是佛性。唯知亦說得見佛性。唯彼人雖實得見佛性。而未能知謂是佛

주장하는 것이다.

227) 무생지:

- ① 이미 미래의 苦果를 받지 않음을 확실히 자각하는 지혜이다. 이미 四聖諦를 체득했기 때문에 다시 체득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아는 지혜로서 곧 阿羅漢의 最極智를 말한다.
- ② 일체법의 生滅이 없는 실체를 아는 지혜 또는 번뇌의 더러움을 滅盡하여 거기에 이끌리지 않는 궁극의 지혜를 말한다. 생겨나고 소멸하는 변화를 여윈 영원한 지혜이다.

228) 안식: 사람이 가지는 六識의 하나로서 眼根을 所依로 하여 色境을 了別하는 識을 말한다. 能生의 眼根을 따라서 眼識이라고 이름한다. 眼識으로부터 意識에 이르기까지 根을 따라 이름을 세워서 眼識·耳識·鼻識·舌識·身識·意識이라고 하며, 이들을 모두 합쳐서 六識이라고 통칭한다.

性. 如說眼識見青不知青. 雖未能知謂是青色. 而是眼識實見青色. 二乘者見佛性. 當知亦爾. 證不證門文義如是.

다음에 普遍이나 · 普遍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여 보는 부문에 관한 글의 뜻이란, 이 『大般涅槃經』 「獅子吼菩薩品」 제23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불성에 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색이라는 것이며, 둘째는 색이 아니라는 것이다. 色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부처님과 보디삿뜨와를 가리키며, 色이 아닌 것이란 모든 중생을 가리키고, 色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이를 말하며, 色이 아닌 것이란 들어서 보는 이를 말한다.”²²⁹⁾

後魏北天竺三藏菩提留支共沙門曇林等이 번역한 『妙法蓮華經憂波提舍』에서 논설한다.

“八生에서 一生²³⁰⁾에 이르기까지 모두 初地를 증득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장 높고 온전한 깨달음 anuttarā samyak-sambodhi’이라고 말하는 것은 三界²³¹⁾의 分段生死를 벗어남으로서, 分數를 따라서 眞如인 佛

229) 『大般涅槃經』

佛性者復有二種. 一者是色. 二者非色. 色者謂佛菩薩. 非色者一切衆生. 色者名爲眼見. 非色者 名爲聞見. (『大正藏』 12-775a)

230) 생을 한번만 지내면서 補處尊이 되어야 부처의 지위에 오를 자격이 됨을 말한다. 예를 들면 보명 보디삿뜨와와 마이뜨레야 보디삿뜨와와 같은 분을 一生補處라고 한다.

231) 불교에서 生과 死의 流轉이 실세없이 連繫되는 미혹한 중생의 세계를 셋으로 分類한 것이다. 첫째, 欲界는 色欲 · 食欲 등의 탐욕이 일어나는 세계를 말하고, 둘째, 色界는 貪欲의 마음은 없어졌으나 아직 微妙한 色相의 형체가 남아 있는 세계를 말하고, 셋째, 無色界는 色相의 형체마저 부정하는 순수한 精神的 存在의 세계를 말한다.

性を 볼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菩提를 얻었다고 말한다.”²³²⁾

『究竟一乘寶性論』²³³⁾의 「僧寶品」에서 논설한다.

“ 또 두 가지 修行 있으니, 말하자면 如實修行과 遍修行을 가리킨다. 如實修行이란, 말하자면 중생의 자성을 청정한 불성의 경계로 보는 것을 가리킨다. 偈頌으로 노래한다.

장애가 없는 깨끗한 슬기로운 이,
진실 그대로 중생을 보니,
자성은 맑고 깨끗한 성품,
불법신의 경계로구나.

遍修行이란, 말하자면 十地の 모든 경계를 두루 하기 때문이다. 모든 중생이 모든 智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또 모든 경계를 두루 함이란, 모든 경계를 두루 함으로서 출세간 慧에 의지하여, 모든 중생에서 축생에 이르기까지 如來藏tathāgatagarbha²³⁴⁾을 가지고 있다는

232) 『妙法蓮華經憂波提舍』

八生乃至一生皆證初地故。此言阿耨多羅三藐三菩提者。以離三界分段生死。隨分能見眞如法性 名得菩提。(『大正藏』26-10a)

233) 印度의 大乘佛敎를 논설하는 가운데에서 如來藏思想을 조직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대표적인 論書이다. 이 책은 일곱 가지의 金剛句로서, 佛·法·僧의 三寶, 如來性·보디bodhi·佛功德·佛業을 설명하고 있다. 이중 보디·佛功德·佛業 등은 如來性を 나타내는 것으로, 如來性は 佛性 곧 佛으로서의 성질이며, 그것이 원인 이 되어 三寶가 있게 되므로 寶性이라고 한다. 이 如來性이 번뇌에 쌓여 있을 때를 가리켜 如來藏이라고 한다. 또한 이 여래성이 더러움을 떠난 청정해진 상태를 bodhi라고 하며, 이것을 法身の 완전한 나타남이라는 의미에서 轉依라 한다. 그리고 이 轉依에 의하여 佛의 德性和 慈悲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한다. 이 논서의 저술 목적은 楞伽經의 空說을 비판하고 佛性の 실재를 밝히려는 것으로서 唯識說과 관련하여 印度의 如來藏思想의 발전을 연구하는 데에 좋은 자료이다.

것을 보는 것이다. 꼭 알아야 한다. 그는, 모든 중생이 眞如인 佛性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는 줄을 알라. 初地보디삿뜨와bodhisattva·마하삿뜨와mahasattva도 두루 모든 진여·법계를 증득하기 때문이다. 계송으로 노래한다.

장애가 없는 깨끗한 슬기로운 눈,
저 모든 중생의 성품을 보니,
무량한 경계를 두루 하였네.
나 이제 공경하고 예배하노라.”²³⁵⁾

그러므로 해석하여 言論한다. 이 가운데에서, 如實修行이란 것은 곧 正體智이며, 遍修行이란 것은 곧 後得智이다. 이로써, 초지보디삿뜨와의 두 智도 다 진여인 불성을 증득하여 볼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다만 정체지는 온전히 진여인 불성의 실체를 증득하므로 여실수행이라고 부르며, 그 후득지는 모든 중생에 다 불성이 있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변행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普遍이나·普遍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여 보는 부문에 관한 글의 뜻은 이와 같다.

遍不遍門之文義者. 如師子吼中言. 復次色者謂佛菩薩. 非色者一切衆生.

234) 여래장tathāgatagarbha: 미혹한 세계에 있는 眞如를 말한다. 미혹한 세계의 사물은 모두 진여에 섭수되었으므로 여래장이라고 한다. 진여가 바뀌어 미혹한 세계의 사물이 될 때에는 그 본성인 여래의 덕이 번뇌망상에 덮이게 된 점에서 여래장이라고 한다. 또 미혹한 세계의 진여는 그 덕이 숨겨져 있을지라도 아주 없어진 것이 아니고 중생이 여래의 性德을 含藏하고 있으므로 여래장이라고 한다.

235) 『究竟一乘寶性論』

又有二種修行. 謂如實修行. 及遍修行. 難證知義. 如實修行者. 謂見衆生自性清淨佛性境界故. 偈言無障淨智者如實見衆生自性清淨佛法身境界故. 遍修行者. 謂遍十地一切境界故. 見一切衆生有一切智故. 又遍一切境界者. 以遍一切境界. 依出世間慧. 見一切衆生乃至畜生有如來藏應知. 彼見一切衆生有眞如佛性. 初地菩薩摩訶薩以遍證一切眞如法界故. 偈言無閼淨智眼見諸衆生性遍無量境界故.(『大正藏』31-825a)

色者名爲眼見. 非色者名爲聞見. 法花論云. 八生乃至一生得阿耨菩提者證初地得菩提故. 以離三界分段生死. 隨分能見眞如佛性. 名得菩提. 寶性論僧寶品云. 有二種修行. 謂如實修行. 及遍修行. 如實修行者. 謂見衆生自性清淨佛性境界故. 偈言. 無障淨智者. 如實見衆生. 自性清淨佛. 法身境界故. 遍修行者. 謂遍十地. 一切境界故. 見一切衆生. 有一切智故. 又遍一切境界者. 以遍一切境界. 依出世慧(惠)眼. 見一切衆生. 乃至畜生. 有如來藏. 應知. 彼見一切衆生. 皆有眞如佛性. 初地菩薩摩訶薩. 以遍證一切眞如法界故. 偈言. 無碍淨智眼. 見諸衆生性. 遍無量境界. 故我今敬禮. 故解言. 此中如實修行. 卽正體智. 遍修行者. 是後得智. 是知初地菩薩二智. 皆能證見眞如佛性. 但正體智. 宜證眞如佛性實體. 名如實行. 其後得智. 見諸衆生悉有佛性. 故名遍[修]行. 遍不遍門. 文義如是.

究竟이나 · 究竟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여 보는 부문에 관한 文證이란, 이 『大般涅槃經』 「獅子吼菩薩品」 제23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불성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색이라는 것이며, 둘째는 색이 아니라는 것이다. 色이라는 것은 ‘가장 높고 온전한 깨달음 anuttarā samyak-sambodhi’를 말하며, 색이 아닌 것은 범부에서 십주보디삿뜨와에 이르기까지이다. 십주보디삿뜨와도 보아서 了了하지 못하므로 색이 아니라고 부른다. 선남자여, 불성에 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색이라는 것이며, 둘째는 색이 아니라는 것이다. 色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붓다님과 보디삿뜨와를 가리키며, 色이 아닌 것이란 모든 중생을 가리키고, 色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이를 말하며, 色이 아닌 것이란 들어서 보는 이를 말한다.”²³⁶⁾

236) 『大般涅槃經』

佛性二種. 一者是色. 二者非色. 色者阿耨多羅三藐三菩提. 非色者凡夫乃至十住菩薩.

『瑜伽師地論』에서 논설한다.

“여쭙어보겠습니다. 모든 究竟의 자리에 이르러 안주하는 보디삿뜨와의 智慧와 如來의 智慧는 어떻게릅니까?

대답한다. 눈 밝은 사람이 얇은 겹질을 사이에 두고 온갖 빛깔의 像을 보는 것과 같이, 모든 究竟의 자리에 이르러 안주하는 보디삿뜨와의 미묘한 智慧도 온갖 경계를 대하는 것이 그와 같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

눈 밝은 사람이 사이에 장애를 받지 않고 온갖 빛깔의 像을 보는 것과 같이, 여래의 미묘한 지혜도 온갖 경계를 대하는 것이 그와 같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 그림을 그리는 사업이 원숙하여 여러 가지 채색을 하되 오직 뒤의 미묘한 빛깔만을 아직 깨닫지 못하지 못한 것과 같이, 구경의 자리에 이른 보디삿뜨와의 미묘한 지혜도 그와 같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 그림을 그리는 사업이 원숙하여 여러 가지 채색을 하되 최후에 미묘한 빛깔로 벌써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이, 여래의 미묘한 지혜도 그와 같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 눈 밝은 사람이 희미한 속에서 온갖 빛깔을 보는 것과 같이, 구경의 자리에 이른 보디삿뜨와의 미묘한 지혜도 그와 같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 눈 밝은 사람이 모든 어두움을 벗어나서 온갖 빛깔을 보는 것과 같이, 여래의 미묘한 지혜도 그와 같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 눈 밝은 사람이 멀리서 온갖 빛깔을 보는 것과 같이, 구경의 자리에 이른 보디삿뜨와의 미묘한 지혜도 그와 같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 눈 밝은 사람이 가까이서 온갖 빛깔을 보는 것과 같이, 여래의 미묘한 지혜도 그와 같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 조금 흐린 눈으로 온갖 빛깔을 보는 것과 같이, 구경의

十住菩 薩見不了了。故名非色。善男子。佛性者復有二種。一者是色。二者非色。色者謂佛菩薩。非色者 一切衆生。色者名爲眼見。非色者名爲聞見(『大正藏』12-775a)

자리에 이른 보디삿뜨와의 미묘한 지혜도 그와 같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 아주 맑은 눈으로 온갖 빛깔을 보는 것과 같이, 여래의 미묘한 지혜도 그와 같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²³⁷⁾

이런 글의 證明을 근거로 하여, 佛性の 境界를 보디삿뜨와는 아직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境界를 대하는 것이 다 알지 못함을 꼭 알아야 한다.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통틀어 귀로 들어서 본다고 말한다. 因을 얻은 것이 원만하여졌기 때문에 또한 눈으로 본다고 말한다.

그러한 까닭은, 아직 온전히 알지 못하는 이에게 줄여서 다섯 가지 뜻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本識이 가장 미세한 妄想과 서로 어울려서 無明의 알음알이가 金剛의 눈을 가리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얇은 껍질을 사이에 둔 것과 닮은 것이다.

둘째, 萬行을 벌써 갖추고 또 三智²³⁸⁾를 벌써 얻었지만, 다만 아직

237) 『瑜伽師地論』

問一切安住到究竟地菩薩智等。如來智等。云何應知此二差別。答如明眼人隔於輕靨睹衆色像。一切安住到究竟地菩薩妙智。於一切境當知亦爾。如明眼人無所障隔睹衆色像。如來妙智於一切境當知亦爾。如畫事業圓布衆彩唯後妙色未淨修治。到究竟地菩薩妙智。當知亦爾。如畫事業圓布衆彩最後妙色已淨修治。如來妙智當知亦爾。如明眼人於微闇中睹見衆色。到究竟地菩薩妙智。當知亦爾。如明眼人離一切闇睹見衆色。如來妙智當知亦爾。如明眼人遠睹衆色。到究竟地菩薩妙智當知亦爾。如明眼人近睹衆色。如來妙智當知亦爾。如輕翳眼觀視衆色。到究竟地菩薩妙智。當知亦爾。如極淨眼觀視衆色。如來妙智當知亦爾。如處胎身。到究竟地諸菩薩身當知亦爾。如出胎身。諸如來身當知亦爾。如阿羅漢夢中心行。到究竟地菩薩心行當知亦爾。如阿羅漢覺時心行。如來心行當知亦爾。如味燈體。到究竟地菩薩智體當知亦爾。如明燈體。如來智體當知亦爾。是故當知一切安住到究竟地諸菩薩衆。與諸如來妙智。身心有大差別如是如來證菩提已。遍於十方一切佛土。普能施作一切佛事(『大正藏』30-574 b-c)

238) 三智: 여기서 말하는 三智는 成所作智・妙觀察智・平等性智의 세 가지 지혜를 가리킨다.

㉠ 成所作智: 네 지혜의 하나이며, 佛果에 이르러 有漏의 前五識과 그 相應心を 轉

大圓鏡智²³⁹⁾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마치 가장 미묘한 빗갈만을 아직 깨끗이 마무리하지 못한 것과 같은 것이다.

셋째, 두 가지 장애를 解脫하였으므로 맑고 깨끗함을 얻었지만 아직 가장 微細한 無明住地가 가벼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희미한 어둠 속에서 빗갈을 보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넷째, 惑障의 習氣는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가까이서 법공을 관찰하는 지혜를 장애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마치 멀리 떨어져 있는 빗갈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다섯째, 그 얇을 장애²⁴⁰⁾하는 기운이 비록 미세하고 얇다고는 하더라도 가까이서 지혜의 눈을 가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것은 얇은 껍질을 사이에 두고 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다섯 가지 뜻을 근거로 하여 보면, 아직 온전히 관조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다섯 가지 비유를 들어서 논설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서 어려운 것을 잘 會通해서 서로 어긋나는 경전의 글을 和會한 것은, 『二障義』 가운데에서 자세하게 논설한 것과 같다. 세 번이나

捨하고 얻은 지혜이다.

㉠ 妙觀察智: 네 지혜의 하나이며, 제6식을 바꾸어 얻은 지혜이다. 妙는 불가사의한 힘의 자재를 말하며, 모든 법을 관찰하여 정통하고, 중생의 근기를 알아서 불가사의 자재한 힘을 나타내며, 공교롭게 법을 말씀하여 여러 가지 의심을 끊게 하는 지혜이다.

㉡ 平等性智: 네 지혜의 하나이며, 제7식을 轉捨하여 얻은 무루의 지혜이다. 일체 모든 법과 자기나 다른 유정들을 반연하여 평등·一如한 理性을 관조하고 自他の 차별심을 여의어 대자대비심을 일으키며, 보디쌍뜨와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교화하여 이익이 되게 하는 지혜이다.

239) 大圓鏡智: 네 지혜의 하나이며, 有漏의 제8식을 뒤집어서 얻은 無漏의 지혜이다. 이것은 거울에 한 점의 티끌도 없이 삼라만상이 그대로 비추어 모자람이 없는 것과 같이, 원만하고 분명한 지혜이므로 大圓鏡智라고 한다. 佛果에서 얻는 지혜를 가리킨다.

240) 知障: 두 장애의 하나로 所知障·智障이라고도 한다. 貪·瞋·癡 등의 煩惱가 알아야 眞相을 그대로 알지 못하게 하므로, 이들 번뇌를 所知障이라고 하며, 眞智의 發顯을 障礙하는 점에서 智障이라고 한다.

거듭하여 논설한 안의 글의 뜻은 이와 같다. 만일 이와 같이 세 번이나 거듭하여 분별한 뜻을 알면, 여러 경전의 글의 나아가고 물러남이 통하지 않는 바가 없을 것이다.

究竟不究竟門文證者. 師子吼中言. 佛性亦二. 言色者阿耨菩提. 非色者凡夫乃至十住菩薩. 見不了. 不了故名非色. 色者名爲眼見. 非色者名爲聞見. 瑜伽論云. 問. 一切安住到究竟地. 菩薩智等. 如來智等. 有何差別. 答. 如明眼人. 隔於輕繫. 觀衆色像. 到究竟地. 菩薩妙智. 於一切境. 當知亦爾. 如知盡事業圓布衆采. 唯後妙色. 未淨修治. 已淨修治. 菩薩如來. 二智亦爾. 如明眼人. 微闇見色. 離闇見色. 二智亦爾. 如遠見色. 如近見色. 猶如輕翳眼觀. 極淨眼觀. 二智差別. 當知亦爾. 依此文證. 當知佛性境界. 菩薩未究竟. 於一切境. 皆未究盡. 未究盡故. 通名聞見. 得因滿故. 亦名眼見. 所以未窮知者. 略有五義. 一者本識相應. 最綱妄想. 無明所識. 隔金剛眼. 是故似隔輕繫也. 二者萬行已備. 三智已得. 而唯未得大圓鏡智. 如最妙色. 未淨修治. 三者解脫二障故得淨. 未輕極微無明住地. 是故不異微闇見色. 四者有惑障習. 而非親障法空觀智. 故如遠色. 五者其知障氣. 雖是微薄. 近曉惠眼. 事同輕繫. 依是五義. 未能窮照. 故說如是五種譬喻. 於中通難. 會相違文. 具如二障義中廣說. 第三重內.